

영남학인 孫德升(1659-1725)의

학자 · 관료적 성격

— 嶺南學과 近畿學의 절충이 빚어낸 인간상 —

김학수*

■ 차례 ■

- I. 머리말
- II. 가학적 배경과 학문연원
: 가학 계승과 嶺南·近畿學의 양측적 수용
- III. 학자적 역할과 성격
: 영남 士風에 대한 비판과 處士의 지향
- IV. 관인적 지향과 특성
: 直道의 추구하고 시비의 엄정한 분별
- V. 18세기 영남사람에서의 역할과 위상
: 院享論 및 文字撰述을 중심으로
- VI.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후기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집안에서 성장했으면서도 배움[學]과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수석연구원

그것의 실천[行]에 있어 기존의 영남 학인들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보였던 손덕승의 학자·관료적 면모를 조명함으로써 인물사 연구의 다양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있다.

손덕승은 적개공신 鷄川君 孫昭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양반 중에서도 기득권층에 속했고, 경주 良洞이라는 안정된 공간에서 성장했다는 점에서는 보수 유림층으로 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晦退라는 영남학의 줄기를 수용하면서도 近畿學[서울학]적 요소를 아우르고 있었고, 李玄逸로 상징되는 산림의 존재와 역할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에서는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고자 했던 의식이 간파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 노론학계의 상징 송시열을 향한 직설적 논평과 권력에 아부하는 세태를 일소코자 했던 결단력은 동시대 영남의 사대부 지식인들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이 글은 손덕승의 이러한 학자·관료적 면모의 동인을 영남학과 서울학의 융합적 측면에서 찾고자 했으며, 이런 작업은 조선 후기 인물사 연구의 形質을 세밀화 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孫德升, 嶺南學派, 嶺南學, 近畿學

I. 머리말

孫德升(1659-1725)은 숙종조 영남을 대표하는 학자·관료의 한 사람이었다. 그에게 주어진 67년이라는 역사적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고, 그가 겪어야 했던 정치·사회·학문적 상황도 녹록한 것은 아니었다. 정치적으로는 환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침을 거듭했고, 사회적으로는 세에 매몰되어 가는 세태에 분개했으며, 학문적으로는 外樣에 치중하며 정치권

력과 가까워져가는 학계의 현실을 깊이 우려했다. 어찌 보면 손덕승의 삶은 시대에 대한 고민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시대를 결코 방관하지 않았다. 물러남을 지향하면서도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공익에 가까운 것이라면 기꺼이私를 버렸다. 완급을 알았기에 벼슬길에서는 위엄과 관용을 병행할 수 있었고, 칼날같은 言說도 논리를 갖추었기에 毒舌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학자로서는 ‘東都師儒’로 인식되며 영남학계의 주목을 끌었고, 관료로서는 관용과 직도를 아울러 적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한편 손덕승은 자신을 낳고 길렀던 良洞이란 마을과 慶州라는 고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또 자신에게 무형의 정신적 자산을 물려준 집안과 선조에 대한 향념도 자못 깊은 사람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가정[집안]·사회·국가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한 자기 계발과 노력을 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과 業이 양반과 士였기에 학문과 벼슬 그리고 ‘文字’로써 그 직분을 다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손덕승의 생각과 행동의 양태 속에는 여느 영남 학인들과는 일정한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필자는 그 동인을 영남학의 토대 위에 근기학적 요소가 유입된 결과로 풀이하고자 하며, 이 글 또한 이런 맥락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된 것임을 밝혀 둔다.

아울러 논고는 손덕승의 삶을 개관한 시론적인 글에 지나지 않지만 이를 계기로 조선후기 영남학인에 대한 이해의 스펙트럼이 좀 더 확장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본다.

II. 가학적 배경과 학문연원

: 가학 계승과 嶺南·近畿學의 양측적 수용

1. 가학적 배경

손덕승은 1659년(효종10) 12월 2일 孫鍵과 안동권씨 사이에서 1남 2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선대는 양동에 정착한 7대조 孫昭가 문과에 합격하여 청요직을 지내는 한편으로 敵愾功臣에 녹훈되어 鷄川君에 봉해짐으로써 문벌가문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확보했다.

따지고 보면 양동의 경주손씨는 손소의 아버지 孫士晟 대부터 사환가의 전통을 세워나가기 시작했고, 손소의 현달로 인해 家格이 한 층 고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사환을 지속하면서도 학문과 行誼를 중시했으며, 유교 사회의 핵심 덕목인 清白을 강조하는 가풍을 수립해 나갔다.

예컨대, 손사성의 경우 ‘淸名으로서 당세에 중함을 입었다’¹⁾는 비명이 웅변하듯 그는 환로에 있는 동안 청백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15세기 관료 사회의 모범이 되었으며, 맑고 덕스러운 삶의 자세는 후손들에게도 값진 귀감이 되었다. 외증손 이언적이 손사성을 비롯한 外氏 일문의 청백을 크게 칭송한 것과²⁾ 孫德升이 손사성을 ‘月城孫門’의 起家祖로 인식한 것을

1) 孫德升, 『梅湖集』 卷5, <鷄城君墓碣銘> “以淸名重於當世”

2) 李彦迪, 『晦齋集』 卷1, <次淸道淸德樓韻示主人李使君煥庚寅> “綠酒對靑眼 紅塵欲白頭 郊平煙十里 樓古月千秋 雲嶺尋無日 萍蓬跡似浮 徘徊慕淸德 留詠有孫侯 (細註) 約與友人尋雲門山未果外曾祖鷄城君曾歷此郡 有題詠 孫氏世以淸白著名 樓名實相符 故及之”

종합하면 양동 손문은 손사성 대에 청백을 모토로 하여 起家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손사성은 직장을 지낸 안동권씨 權明利의 사위가 되어 상주에서 청송 安德으로의 이거를 통해³⁾ 손씨 일문의 사회적 교유망을 확대하는 바탕을 마련했다. 이런 해석은 권명리의 내외 자손들이 후일 영남사람의 주류로 활약하게 된다는 데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권명리의 후손 중에서도 증손자 權幹의 내외손이 더욱 번성했으며, 16-17세기 영남학계를 빛낸 金玠(退溪門人), 申之梯(鶴峯門人), 趙亨道(寒岡門人), 趙遵道(旅軒門人), 成安義(寒岡門人) 등은 모두 그의 내외손들이었다.⁴⁾ 양동의 손씨들은 이들과의 척연을 바탕으로 안동·영주·의성·청송권 사람들과의 학문사회적 유대를 지속하였고, 이런 자산은 손덕승에까지 유전되었다.

한편 손덕승의 7대조 손소(1433-1484)는 21세 되던 1453년(단종 1) 사마 양시에 합격했고, 1457년(세조 3)에는 豊德柳氏와의 혼인을 계기로 청송 안덕에서 경주 양좌동으로 이거하였다. 이로부터 2년 뒤인 1459년(세조 5)에는 과거에 합격하여 문신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3) 孫士晟 부부의 산소는 안덕 池洞에 소재하고 있다. 지동은 본디 안동권씨 선영이었으나 손사성이 권명리의 사위가 되고, 閔興이 손사성의 사위가 되면서 權·孫·閔 3성의 분묘가 함께 조성되었다.(權謙, 『厚菴集』 <池洞丘墓記> “其後 卽雞城君孫士晟內外墳也 其前卽驪興閔氏雙墳也 雞城君卽直長公女壻 而閔氏卽雞城君女壻 經兩姓許葬女壻後入爲主 閔氏世葬其上”)

4) 17세기 이후 안덕은 權幹의 손서였던 함안조씨 趙址 후손들의 세거지가 되었는데, 이들은 門中契, 洞契 조직을 통해 재지적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나갔다. 특히 안덕 동약은 권간이 呂氏鄉約을 본받아 창안한 것으로서 내외 자손들에 의해 면면히 계승되었다.(趙咸世, 『五宜軒集』 卷1, <書門中契帖後> ; 卷1, <安德洞案重修記> “中世有 權公諱幹 於先考爲外曾王父也 其行己律身 模範一鄉 乃做呂氏之約 條立洞規 以長忠厚之風 洞之人尊奉世守 式至今日”)

이 과정에서 그는 사마시 및 문과 동방이었던 金宗直과 굳건한 교우 관계를 맺었으며, 두 아들 손중돈·계돈 형제는 점필재문인이 되었다. 이로써 양동의 손씨들은 학적 淵源性을 확보하면서 영남사림과의 본류로 편입되어 갔다.

문과 합격 이후 손소는 승문원 정자, 승정원 주서 등 엘리트 문신의 길을 착실히 걸었다. 주서 재직 시에는 文藝試에 장원하여 특진의 기회가 주어졌고, 1464년(세조10)에는 겸예문에 임명되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특전을 얻기도 했다.⁵⁾ 이는 세조가 자신의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를 육성하면서 손소의 존재를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손소는 四書·五經 및 『左傳』 구결의 교정을 담당할 만큼 경학에 뛰어났고, 兵政 및 陳法, 兵將說 및 醫書에도 조예가 깊었다.⁶⁾ 1466년(세조 11) 윤3월 세조가 그에게 格物致知의 공부에 힘쓸 것을 면려하는 한편 『주역』의 乾卦를 강론하게⁷⁾ 한 것은 그의 학술을 깊이 신임했음을 뜻했다.

한편 손소는 1467년(세조 13) 5월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키자 平虜將軍 박중손의 종사관으로서 군무를 주관했고, 난이 진압되자 敵愾功臣 2등에 책훈됨으로써⁸⁾ 당당히 공신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로써 그는 권력의 상층부에 존재하게 되었지만 律身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중앙의 요직보다는 성주·안동·진주 등의 고을을 맡아 백성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5) 『세조실록』 권33, 세조 10년 7월 6일(정사).

6) 孫昭, 『襄敏公集』 『年譜』 <甲申10月癸未>, <甲申10月丙申>, <乙酉七月乙未>, <乙酉八月丙午>, <乙酉八月丁未>.

7) 孫昭, 『襄敏公集』 『年譜』 <丙戌閏三月壬申>.

8) 『세조실록』 권43, 13년 9월 20일(임오).

치적을 쌓았는데, 1471년(성종 2) 성주목사 시절에는 백성들이 유임을 청하는 상언을 올릴 정도로 치성이 자자했다.⁹⁾

이후 손소는 1476년(성종 7) 진주목사를 끝으로 퇴관의 뜻을 굳히고는¹⁰⁾ 고향 양동으로 돌아와 寒士처럼 지내다 1484년(성종 15) 3월 7일 향년 5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줄기에는 순박·근신·효성·청렴했던 인간적 품성과 관료로서의 유능한 자질이 잘 평가되어 있는데,¹¹⁾ 손소의 인간적 품성과 관료적 자질은 중요한 정신적 가치가 되어 자손들에게 세전되어 갔다.

손소는 슬하에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집안의 종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중자 仲暉이었고, 막내 閔暉이 손덕승의 6대조 漁隱公이다. 손운돈은 아버지의 훈공에 힘입어 수의부위의 직함을 가졌지만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학문과 행신에 힘써 德行으로 사람의 추종을 받았는데, ‘漁隱’이란 아호가 그의 삶의 지향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사환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가풍 때문이었을까. 손덕승의 5대조 孫普는 중하급직인 豊儲倉 직장에 그쳤고, 고조 孫光昱은 忠義衛 직함을 가졌을 뿐이었다. 이런 추세는 손덕승이 숙종 연간인 1684년 문과에 합격하여 문신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9) 『성종실록』 권13, 성종 2년 11월 26일(갑자).

10) 『성종실록』 권70, 성종 7년 8월 21일(신묘).

11) 『성종실록』 권165, 성종 15년 4월 11일(정묘).

2. 학문연원과 갈래 : 嶺南學과 近畿學의 접목

환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가격의 실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손덕승의 선대는 사환에 대해서는 難進의 입장을 고수 하였지만 학문과 문장 그리고 忠義를 통해 선비가문으로서의 격을 꾸준히 고양시켜 왔다. 그것은 선조 계천군의 유지를 올곧게 받드는 것인 동시에 16세기 이후 영남사람이 추구했던 治家の 흐름 및 방침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 가계가 학자·선비가문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사람은 손덕승의 증조 孫魯(1578-1649)였다. 손로는 寒岡·旅軒門下에서 수학했고, 학덕을 겸비한 선비로 이름이 높았다. 특히 그는 務實을 중시 하여 임진왜란 때는 고작 15세의 나이로 창의하는 결기를 보였는데, 그의 충의로운 행적은 「火旺山同苦錄」에 실려 전하고 있다.

한편 孫魯가 영해 지역의 부호이자 임진왜란 때 혁혁한 무공을 세운 무의공 朴毅長의 사위라는 사실은 이 가계의 사회경제적 기반 및 인적 연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631년(인조 9)에 기준할 때, 박의장의 총 재산은 노비 260구, 전답 약 1,400마지기였다. 이 가운데 만사위였던 손로에게 주어진 몫은 논 80마지기, 밭 63마지기, 노비 35구였다.¹²⁾

그리고 비록 출계하였지만 박의장의 3자 朴玠이 17세기 중후반 영남

12) 『古文書集成』82-寧海 陶谷 務安朴氏(1) : 武毅公(朴毅長)宗宅篇, 2008, 한국학중앙연구원, 285-295쪽 <朴瑜男妹和會文記>(1631); 정수환, 「고문서를 통한 영해 무안박씨 가계의 재조명」, 『명가의 고문서』(7) - 무안박씨 무의공후손가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369쪽.

학파를 이끈 李徽逸·玄逸 형제의¹³⁾ 처부였다는 점에서도 이 혼인의 중요도를 알 수 있다. 추론컨대, 손덕승의 아버지 孫鍵이 영해지역에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던 안동권씨 權璟의 딸과 혼인할 수 있었던 것도 손로 대를 기점으로 영해권에 구축된 혼반과 무관치 않을 것 같다.

손로가 사사한 鄭述·張顯光은 이황·조식 이후 영남학파를 이끈 석학이었고, 이들을 종사로 하여 형성된 ‘寒旅學派’는 17세기 초반 영남학계의 실체이자 중심이었다.¹⁴⁾ 손로의 한려 양문 입문은 양동의 손씨들이 한려학파의 핵심이자 영남사림의 주류로 발돋움하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다.¹⁵⁾ 손로 대를 기점으로 맺어진 일가의 聯臂·戚黨이 한려학파, 특히 여헌학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 예컨대, 손로의 장자 손중계와 차자 孫宗漢은 각기 曹輻(여헌문인)과 鄭克後(여헌고제)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특히 『西岳志』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정극후는 旅門十賢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고제였다.¹⁶⁾ 이 뿐만 아니라 손로의 장녀서 權炘, 차녀서 鄭好仁, 3녀서 鄭聚 또한 영천·경주지역 여헌학파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손자 權鎭의 처부 權尙敏은 장현광의 立巖四友 가운데 한 사람인 權克立의 손자였다. 立巖의 안동권씨들은 영천지역 여헌학파의 구심점인 立巖書院의 건립 및 운영주체라는 점에서

13) 李徽逸·玄逸 형제의 學問과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김학수, 「葛菴 李玄逸 연구 - 經世論과 學統關係를 중심으로」,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0-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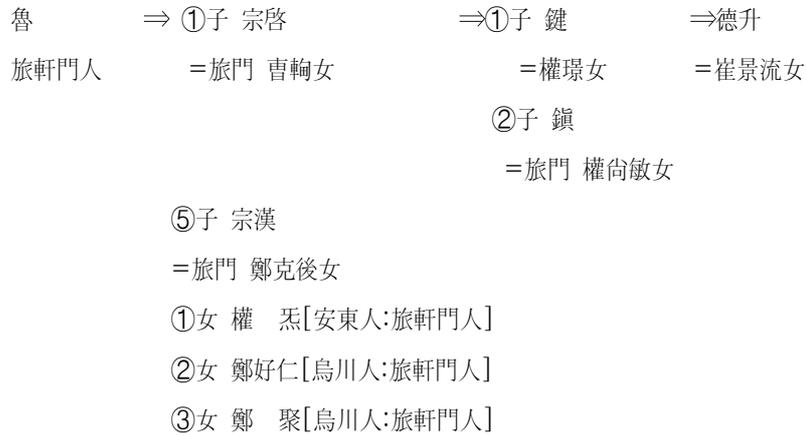
14)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5-24쪽.

15) 경주지역 旅軒門人은 孫魯를 비롯하여 金景斗·權應生·鄭四勿·鄭克後·鄭四震·權炘·李皖·鄭敏·權任·崔東亮 등인데, 이들의 상당수가 손로 집안과 직·간접적인 척연을 맺고 있었다. 여헌문인의 현황과 분포에 대해서는 김학수, 앞의 논문, 참조.

16) 宋時烈, 『宋子大全』 卷30, <與宋明甫戊戌十二月十八日> “嶺中如鄭道應·河弘度·申碩蕃·柳千之 似爲表著 而亦不無取捨 曾聞鄭克後 爲旅軒高弟云 此亦如何”

여헌학과 내에서도 위상이 매우 높은 집안이었다.

<그림 1> 경주손씨 손로 가문 가계도[略]



결국 손로는 경주지역 여헌문인의 중심을 이루는 존재였고, 그로 인해 확충된 인적 연계망은 이 집안의 학풍이 旅軒學에 바탕을 두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손로의 사림에서의 역할과 위상은 玉山書院의 운영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玉山書院執事記」에 따르면, 손로는 24세 되던 1601년 秋 후 때부터 거의 매년 집사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그가 서원 운영의 핵심 멤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1630년(인조 8)에는 동종의 孫宗賀를 이어 원장에 재임하면서 교학 및 향사를 주관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경주사림의 영수로 자리하게 되었다. 1644년(인조 22) 그의 아들 孫宗啓

가 순찰사에게 정문하여 옥산서원의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것에서도¹⁷⁾ 孫魯 가계가 지니는 유림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손자 孫鍵은 20세 되던 1649년 12월 옥산서원 院生으로 정식 입원하게 된다. 후일 손덕승이 옥산서원 유생들의 학업에 각별한 관심을 쏟은 것도 서원에 대한 선대 이래의 애착에서 기인하는 것임이 분명했다.

이상의 서술에 따르면, 손덕승 가계는 7대조 계천군 및 종6대조 손중돈 부자와 김종직의 사우관계를 통해 일찍부터 사림과의 학통을 계승할 수 있었고, 증조 孫魯의 폭넓은 학문적 활동에 바탕하여 일가의 학풍이 한려학[특히 旅軒學]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여기에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晦齋學의 영향을 아울러 받음으로써 영남학파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학문 계통과 연원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孫鍵의 혼인은 손덕승의 학문 및 사회적 활동의 범주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隱德君子를 지향하며 경학에 박통했던 손건은 영해의 선비 權璟(1604-1666)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학문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충하게 된다. 학문과 덕망 그리고 효행까지 겸한 권경은 영해부사 崔惠吉이 조정에 천거할 만큼¹⁸⁾ 학행이 뛰어났다. 그와 함께 천거된 인물이 李滉 ⇒ 金誠一 ⇒ 張興孝로 이어지는 영남학통의 적전으로 일컬어지는 李徽逸이란 것에서도 이 천거의 의미를 족히 짐작할

17)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玉山書院誌』 『呈書謄錄』, <孫宗啓等上書>.

18) 蔡濟恭, 『樊巖集』 卷52, <贈持平臺隱權公墓碣銘> “於是令聞廣譽 賁然日章 崔貳銓惠吉 嘗左遷知海府 疏薦公及李存齋徽逸 孝宗嘉之 命禮招 禮部以東帛加璧 無國朝已例 請令廟堂立制 諸大臣以爲不便 事遂寢”

수 있다.

권경의 학자적 행보에서 특기할 것은 그가 근기남인 계열인 金時讓의 문인이란 사실이다. 그 계기는 자세하지 않지만 권경은 어릴 적에 김시양을 사사했고,¹⁹⁾ 덕기와 학문적 자질을 눈여겨 본 김시양은 마침내 그를 질서로 삼게 된다.

荷潭 金時讓을 鵬舍에서 배알하고, 제자의 예를 갖추었다. 荷翁이 한번 보고는 기특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며 힘써 장려하고 인도했다. 공은 오로지 규범에 따랐고,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잃지 않았다. 여러 해를 거치며 학업이 크게 진보하고 덕기가 이루어지자 荷翁이 ‘이 아이는 임금을 도울 그릇이다’ 하고는 형의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²⁰⁾

이에 따르면, 권경은 김시양의 문하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수학했던 것 같다. 수학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가 김시양에게서 영남학과는 다른 분위기의 학문을 접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혼인 후에도 김시양의 주선 속에서 사회·학문적인 활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권경과 안동김씨 金時說 딸과의 혼사는 양가의 학문·혈연적 결속을

19) 김시양은 1611년 전라도 都事 재임시에 향시에 출제한 試題가 왕의 失政을 비유했다 하여 중성에 유배되었다가 1616년 寧海로 이배된 바 있는데, 권경이 김시양을 사사한 것도 이 무렵으로 생각된다.

20) 金夏九, 『楸菴集』 卷6, <贈通善郎司憲府持平臺隱權公墓碣銘> “年舞勺 拜荷潭金公時讓于鵬舍 執弟子禮 荷翁一見而奇愛之 誘掖不倦 公一遵規矩 服膺不失 閱數歲學業大進 德器成就 荷翁曰此公輔器 可妻也 以兄之子女焉” ; 蔡濟恭, 『樊巖集』 卷52, <贈持平臺隱權公墓碣銘> “公少師荷潭金公時讓 金公見公德器日成 喜曰可妻也 遂以兄之子女之 卽縣監贈參判時說之女也”

넘어 권경의 자손들이 문학을 통해 발신하는 밑바탕이 되기에 충분했다.

권경은 슬하에 3남3녀를 두었는데, 이 가운데 그의 학자적 품성을 가장 잘 계승한 것이 차남 得輿 계열과 막내사위 손건 계열이었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손덕승의 학자·관료적 성장도 權璟⇒權得輿로 이어지는 외가의 학풍과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Ⅲ. 학자적 역할과 성격 :

영남 土風에 대한 비판과 處士의 지향

손덕승은 8세 되던 1666년(현종 7) 외숙에게 학업을 익히면서²¹⁾ 본격적인 학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외숙이 바로 權璟의 차자 權得輿였다. 권득여는 8세에 능히 글을 지었고, 청소년기부터는 經史에 박통했으며, 약관 무렵에는 이미 문사가 贍富하여²²⁾ 주변의 칭송이 자자했던 문단의 수재였다.

권득여의 수학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외숙 金素를 중유하여 견식이 더욱 넓어졌다’²³⁾고 한 묘갈명의 한 대목이다. 이는 김시양과 권경 사이의 사제관계가 김소와 권득여 사이의 사승관계로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21) 李萬運, 『默軒集』 卷9, <梅湖孫公墓誌銘> “八歲受業於仲舅權公得輿”

22) 鄭重器, 『梅山集』 卷11, <通德郎敬陵參奉花山權公墓碣銘> “八歲屬文 成童通經史 既冠詞翰瞻敏”

23) 鄭重器, 『梅山集』 卷11, <通德郎敬陵參奉花山權公墓碣銘> “從伯舅金觀察素遊 見識益博”

로 영해의 안동권씨들은 서울의 안동김씨를 통해 끊임없이 신지식을 수용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권경의 4내외손[孫德升 및 權大任·大恒·大規]이 문과에 합격하여 관료로 발신하는 밑거름이었음에 분명했다.

권덕여는 비록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평생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향리에서 자제 및 후진 교육에 전념했다.²⁴⁾ 또한 그는 사람됨이 和順하고 남의 좋은 점을 말하기를 좋아하여 문전에는 사대부들의 禮訪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²⁵⁾ 준수한 풍모에 文詞가 뛰어났고, 성품은 忠信·寬裕했으며, 지식은 결코 진부하지 않았기에 영남의 사림사회에서 그를 湖海의 豪士로 기억해주었다.²⁶⁾

손덕승이 큰외숙 權德輿에게 올린 제문에서 ‘큰외숙은 나를 먹여주시고, 작은 외숙은 나를 가르쳐서 성립하게 하셨다’²⁷⁾고 한 것으로 보아 어려서 아버지를 여윈 손덕승에게 외가는 경제적 의지처이자 새로운 학문의 공급처로 구실했다.

손덕승의 학문 방향 및 학자적 가치관의 형성에 권덕여의 역할은 매우 컸던 것 같다. 손덕승은 외가의 가풍을 孝友와 詩禮로 규정했고,²⁸⁾ 자

24) 鄭重器, 『梅山集』 卷11, <通德郎敬陵參奉花山權公墓碣銘> “脫落世事 蒐獵圖史 老猶不釋手 得古人格言 書壁以玩省…訓子以詩書爲先 村秀請業 亦多教育成就”

25) 鄭重器, 『梅山集』 卷11, <通德郎敬陵參奉花山權公墓碣銘> “接人尤盎然和順 樂道人之善而不欲攻其惡 鄉黨翕然推達尊 遠近大夫士東行者 無不造門致禮”

26) 鄭重器, 『梅山集』 卷11, <通德郎敬陵參奉花山權公墓碣銘> “世之慕公者 見公風骨秀文雅盛 皆以公爲湖海一豪士 然此特其外耳 惟其忠信寬裕出於性 又能通古今達事理以濟之 其蘊於內者 豈末世僞儒誦空言遺實行者比哉”

27) 孫德升, 『梅湖集』 卷4, <祭伯舅權公門> “念我失怙 幼無攸托 母氏割愛 送我就學 伯舅哺我 仲舅教我 以至成立”

28) 孫德升, 『梅湖集』 卷4, <祭伯舅權公門> “孝友家風 詩禮庭訓”

신이 그 여풍을 이어받는 것에 자긍심이 컸다. 결국 손덕승에 있어 권덕여는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세사에 지칠 때면 서간·필찰을 통해서라도 격려를 아끼지 않은 정신적 지주였던 것이다.²⁹⁾ 또한 외가에는 내종형제인 동시에 서로를 責善하며 사우처럼 지낸 권덕여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기에 손덕승은 최적의 학업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런 여건과 노력의 결과로써 손덕승(1684년)에 이어 권덕여의 세 아들 大臨(1687년)·大恒:(1705년)·大規(1715년)가 차례로 문과에 합격함으로써³⁰⁾ ‘孫權兩門’의 연이은 科慶은 사림의 부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³¹⁾

이상의 서술에 바탕하여 김씨·권씨·손씨 사이의 가학적 계보를 연결시키면 손덕승은 金時讓⇒金素·權璟⇒權得輿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전술한 晦齋學 및 旅軒學의 요소를 더하면 손덕승의 학문 계통은 嶺南學과 近畿學의 절충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당시 영남의 여느 선비와는 차별되는 매우 진보적이면서도 소중한 자산이었다.

권덕여의 가르침은 손덕승의 학문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 타고난 자질이 더해지면서 손덕승은 채 약관이 되기 전에 이미 학자로서 인근 사림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향리의 부노들은 그의 이름

29) 孫德升, 『梅湖集』 卷4, <祭仲舅權公門> “舅甥之親 父師之恩 誨我撫我 眷我慰勸 世故路阻 有曠歲年 戀戀一書 或以詩篇 前夏告辭 更期今春 念昔待我 無異倚門 罪負此恨 何地控訴”

30) 李萬運, 『默軒集』 卷9, <梅湖孫公墓誌銘> “嘗與內從三人乘舟于海 忽維絕入大洋舟幾覆已而風吹泊之 人異之 後公與三人皆登第”

31) 孫德升, 『梅湖集』 卷1, <三桂具慶宴詩>.

을 부르지 않고 字를 붙였으며, 심지어 ‘玄叟는 내 스승이지 벗이 아니다’고 할 만큼 학인으로 깎듯하게 예우되었다.³²⁾

학문의 너넉함, 학통상의 특성 그리고 경향을 아우르는 교유관계 등을 고려할 때 손덕승은 후학을 양성하며 문과를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손덕승의 학자적 면모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門派性的 배격이라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 했다. 일찍이 손덕승은 사위 李復厚에게 학문의 방향 및 학자로서의 바람직한 처신을 이렇게 당부한 적이 있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독서하면서 특정한 어느 門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論說의 글을 지어 내 뜻을 과장하지도 않았다. … 만약 여항의 선비들이 와서 선생과 제자의 명목으로서 가탁하려 하면 번번이 사양하며 피했고, 또 문자나 辭說을 청해 훗날의 계책으로 남겨 놓으려는 경우가 있으면 붓을 대려 하지 않았다. 이는 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몇 해 전에 군이 나에게 贈行의 글을 요청했을 때 사양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³³⁾

그가 진단한 당시 사람의 학문적 세태는 실질과 겸양보다는 외양과 허세를 부리는데 있었고, 이것의 배격을 위해 그는 평생을 일관된 마음으로 살았다. 또한 그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고민과 우려를 토로하였는데, 남인의 대학사로 일컬어진 權愈에게 보낸 서간에는 그런 정서와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그는 道·業·事·政은 이미

32) 孫德升, 『梅湖集』 卷6, 附錄 <行狀>(李復厚撰) “既冠 遊士友間 先進皆敬重之 字而不名 曰玄叟吾師 非友也”

33) 孫德升, 『梅湖集』 卷3, <答李壻進士復厚>.

선유들이 남김없이 언급하였는데, 새로이 門戶를 세울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전인들의 말이나 표절한다면 그 글이 매우 기이하고, 또 그 말이 아무리 많은들 그것은 결국 자신을 기망하고 남까지 속이는 일이라고 일갈하기까지 했던 것이다.³⁴⁾

이런 인식은 사위이자 문인인 이복휴에게 보낸 서간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손덕승은 李滉에 의해 師道가 바로 서고 道學의 기틀이 확립된 만큼 후학들은 그 心法을 잘 준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그는 만약 스스로 힘써 思索·體認해도 혹 미흡함이 있다면 붕우간에 서로 講磨하되 나이와 지위에 구애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역량과 자질이 되지 않으면서 스승을 표방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였으며, 긴요함이 없는 번다한 저술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스스로 思索·體認해서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붕우와 더불어 서로 강마하되 나이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어찌 감히 부족한 자질로서 거만하게 스승의 자리에 앉아 책 속의 옛 사람들로부터 죄를 얻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저서를 하는 것은 뒷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인데 民人·社稷·政事·文學·道德·心法에 관한 책은 簡冊에 즐비하여 이것을 구해보는 것도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또 무슨 책을 다시 저술한단 말인가.³⁵⁾

그가 더욱 개탄한 것은 참된 스승이 아닌 줄 알면서도 세력이 있는 자를 從學하면서 주장하는 세태였다. 여기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山

34) 孫德升, 『梅湖集』 卷3, <答權承旨愈>.

35) 孫德升, 『梅湖集』 卷3, <答李壻進士復厚>.

林에 대한 비판론을 펴게 되는데, 그 핵심은 학자로서의 산림의 존재성은 인정하지만 학자적 권위를 빌어 정계에 나아가는 것에는 반대하는데 있었다.³⁶⁾

결국 그는 학문 그 자체에 대한 의지와 열정보다는 세력을 지닌 사람의 문하에 나아가 그 문인으로 행세하는 세태를 바로잡아야만 학계의 풍토가 일신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山林의 명목으로 정계에 나아가 부침하는 것은 영남학 내지는 영남사람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으로 인식했던 것이다.³⁷⁾ 이를 위해 그는 스스로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손덕승의 학자적 純粹性과 質實性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36) 孫德升, 『梅湖集』 卷3, <答李堉進士復厚> “其或山林巖穴之間 養望尙志者 相與講授 不無發明於斯文者 而一出其脚 遂遭顛躓之禍 此雖韓侞胄輩之不賈其種 而究竟所遭者 未必眞爲伊川紫陽 則亦豈可專歸於章子厚之爲之乎”

37) 손덕승이 활동하던 시기에 영남출신으로서 산림으로 정소된 사람은 李玄逸이다. 이현일은 1689년 己巳換局 직후 조야의 중망을 받으며 입조했으나 근기납임들과의 갈등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1694년 甲戌換局으로 인해 죄인으로 전락하면서 흥원·중성을 거쳐 광양으로 이배되는 고통을 겪었다. 산림에 대한 손덕승의 부정적 인식이 이현일의 사례를 통해 굳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현일은 기사환국을 전후한 시기부터 문도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1700년대 초반에는 안동 鎭陽에서 본격적인 강학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문인수가 급증하여 이른바 ‘葛菴學派’를 형성하게 되었다. 갈암문인은 퇴계학과권을 중심으로 남명학과·서울·관북권까지 확대됨으로써 그 규모가 극성했는데, 경주지역에서도 李德玄·李德祿·李德齋·李敏中·李誠中 등 5명이 급문했다. 언령적으로나 당시 영남학계의 추세로 볼 때 손덕승은 이현일의 문하를 출입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고, 더구나 그의 외종이었던 權大臨 또한 갈암문인이었음에 반해 손덕승은 이현일과 사제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것은 문파성을 배격하고자 했고, 또 산림의 정치적 진출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복합적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현일의 산림정치가로서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는 김학수, 「갈암 이현일 연구 -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4, 조선시대사학회, 1998, 참조.

학자적 면모에 있어 손덕승의 또 다른 특징은 處士風의 지향이었다. 문과 출신이었던 손덕승은 원칙적으로 문신·학자일 뿐 결코 처사로 구분될 수는 없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내면에는 처사 또는 산림을 지향하는 의식이 매우 강하게 내재된 것은 매우 이채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자의식의 일단은 아래의 시를 비롯하여 그가 남긴 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³⁸⁾

梅湖草堂

동쪽 언덕엔 우뚝한 장송 서쪽 벼랑에는 버드나무라	東岸長松西岸柳
남산엔 첩석이 가득하고 북산에서는 꽃이 피네	南山疊石北山花
그 사이에는 맑은 거울 같은 물이 고여 있고	中藏止水明如鏡
땅위엔 매호 처사가 사는 집이 있다네	土有梅湖處士家 ³⁹⁾

이 외에도 ‘배 안에서 술에 취해 읊어 제군에게 보인다’(舟中醉吟示諸君)는 시에서는 江湖處士의 호방함이 물씬 풍기고⁴⁰⁾, 가야산을 유람하면서 지은 글에서는 산림처사에 대한 강한 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⁴¹⁾ 사환 도중 물의가 일어 사직했을 때 ‘山野太平之民’이자 樵牧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처한 것도 이런 의식의 우회적 표현이었다.⁴²⁾ 산림처사적인 취향과 의지는 1719년 만년의 수신 및 독서처로서 素軒을 건립하는 과정에

38) 孫德升, 『梅湖集』 卷1, <幽居八詠>.

39) 孫德升, 『梅湖集』 卷1, <題梅湖草堂>.

40) 孫德升, 『梅湖集』 卷1, <舟中醉吟示諸君>.

41) 孫德升, 『梅湖集』 卷1, <同遊伽倻山諸作>(附詩序) “梅湖子山林之趣 雪月爲衿 謝芻冠而樂顏瓢 是所謂眞君子 跨龍門而窺禹穴”

42) 孫德升, 『梅湖集』 卷3, <答李壻>.

서⁴³⁾ 더욱 구체화되었다. 여기서 그는 詩書와 松檜를 벗삼아⁴⁴⁾ 문자 그대로 朴素·澹泊한 삶을 추구했을 뿐 師道를 표방하거나 세속의 허명을 탐하지 않음으로써 끝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손덕승의 학문은 질실함에 본령을 두고 下學의 공부를 강조했고, 경전 중에서도 『近思錄』과 『心經』을 가장 중시했다.⁴⁵⁾ 자체들의 학업도 이런 방향과 인식의 틀 속에서 이끌어갔던 것이다.⁴⁶⁾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덕승은 일생 사도를 자처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예외도 존재하였다. 그는 유독 옥산서원과 경주향교 유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남다른 애착을 보였는데, 그것은 ‘晦齋學’과 본향에 대한 애착 또는 책무의식의 발로였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수시로 院生 및 校生들의 학업을 점검·면려하는 한편으로 해박한 학식을 바탕으로 이들의 질문에 문답·수응함으로써 점차 東都의 師儒로 인식되며 지역의 士風 및 文風을 크게 진작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⁴⁷⁾

손덕승이 17세기 후반 경주사림 사회에서 갖는 사유로서의 위상은 1699년에 설행된 향음주례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1699년 11월

43) 孫德升, 『梅湖集』 卷5, <素軒記>.

44) 孫德升, 『梅湖集』 卷1, <題素軒>.

45) 孫德升, 『梅湖集』 卷3, <答李堦> “近除却案上許多書 只將心經近思錄 俯讀仰思 乃知天下古今洪甸大響玄妙至理 本自從切近精微中出來 … 且限到有生之日 而做下學工夫 庶幾不至重得罪於聖賢”

46) 孫德升, 『梅湖集』 卷1, <書示諸兒因自箴>.

47) 孫德升, 『梅湖集』 卷1, <玉山院齋贈讀書諸生>, <巽軒試藝後贈諸生>; 卷3 <答玉院讀書諸生別紙>, <與巽堂諸秀才>. 손덕승은 經學과 文章은 물론 禮學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예학에 대한 그의 지식은 鄭台彦에게 보낸 서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孫德升, 『梅湖集』 卷3, <答鄭台彦別紙>). 손덕승은 17-18세기 영남의 정통 유학자답게 불교는 단호히 배척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孫德升, 『梅湖集』 卷3, <擬唐太史令傳奕請除佛法奏>)

당시 경주부윤 李衡祥(1653-1733)은 사풍을 진작하고 예속을 강화하기 위해 경내의 선비들을 모아 향음주례를 설행하였다. 잘 알다시피 향음주례는 향촌의 선비·유생들이 학교·서원 등에 모여 학덕과 연륜이 높은 이를 主賓으로 모시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는 鄉村儀禮의 하나이다.

이 당시의 향음주례에 대해서는 『東都鄉飲錄』⁴⁸⁾에 그 절차와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 향음주례에는 부윤 이형상을 비롯하여 총 71인이 참여하였는데, 설행 과정에서 이형상이 가장 긴밀하게 논의한 대상이 바로 손덕승이었다.

물론 향음주례에서 주인을 제외한 제일 수좌인 賓에는 연치를 고려하여 任勉(당시 78세)이 차정되었지만 그 다음 자리인 介에 손덕승이 차정되었다. 이 때 그의 나이 불과 41세였고, 직함은 전직 지평이었다. 이는 손덕승이 이미 40세를 전후한 시기에 경주의 유림사회에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물론 손덕승이 경주부윤 이형상과는 매우 절친한 벗이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학문·사회적 역할 또는 지위의 뒷받침 없이 介라는 자리에 차정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한편 참가자 71명 가운데, 양동손씨 출신은 손덕승을 비롯하여 孫錡(賓長), 孫汝說·孫汝沃·孫汝魯·孫是構·孫是義(이상 象賓) 등 총 7명이다. 참여 숫자 및 역할적 비중이 매우 높는데, 이는 양동손씨의 사회적 위상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가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숙종~경종연간 경주유림의

48) 『東都鄉飲錄』(仁川廣域市立博物館所藏, 1699年, 紙本墨書, 筆寫成冊本)

학문적 리더로 인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1725년 2월 23일 그가 고종했을 때 벼슬아치와 선비들 모두 ‘善人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師儒의 자리가 비게 되었구나’⁴⁹⁾고 한 탄식은 그의 존재감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다.

IV. 관인적 지향과 특성 :

直道の 추구하고 시비의 엄정한 분별

손덕승은 26세 되던 1684년(숙종 10) 9월 泮宮 별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하여 直赴殿試의 자격을 부여받은 다음 그해에 설행된 식년 문과에서 병과 3등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사실 그가 과거에 응시한 것은 조모 창녕조씨의 간곡한 당부 때문이었다.⁵⁰⁾

泮宮別製에서 孫德升 등 19인을 뽑았는데, 명하여 등급이 높은 3인은 及第를 내려 주도록 하고, 이하 16인은 모두 會試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였다.⁵¹⁾

손덕승이 합격하던 1684년은 서인집권기로서 남인이 정계에서 축출된 庚申換局(1680)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이었다.⁵²⁾ 따라서 정치적

49) 孫德升, 『梅湖集』 卷6, 附錄 <行狀>(李復厚撰) “搢紳學者咸歎息以爲善人亡矣 師儒空矣”

50) 孫德升, 『梅湖集』 卷6, 附錄 <行狀>(李復厚撰) “既七年 祖母夫人曰 科第所以榮親 吾有望於汝父而未副 汝其圖之 先生乃出而應試”

51) 『숙종실록』 숙종 10년 9월29일(임진).

52) 송시열의 告廟를 주창했다는 이유로 1680년 庚申換局 때 죽임을 당한 李元禎은 손

여건상 영남남인이었던 손덕승의 운신의 폭도 그만큼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재능과 식견이 탁월했던 그는 합격 즉시 관계의 주목을 받았고, 심지어 洪萬朝는 그를 이조의 관원으로 추천하기까지 했다.

물론 그는 서인 당로자의 유혹을 뿌리치고 꼳꼳하게 처신했고, 이 과정에서 서인계 정승으로부터는 동방의 傑士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지만 관료로서의 운명은 이 때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⁵³⁾

손덕승은 급제 이듬해인 1685년 승문원 정자에 임명되었으나 조모의 상을 당해 근속하지는 못했다. 이후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翰林에 의망되었으나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金泉道 찰방에 출보되는 곡절을 겪었다. 그럼에도 그는 직무에 최선을 다했고 1690년 기근 때에는 봉급을 털어 기민을 구제했고, 誠信과 禮讓으로서 吏民을 이끌었다. 김천도의 郵卒들이 비를 세워 그의 치적을 기린 것은⁵⁴⁾ 선정에 대한 속 깊은 보답이었다.

이후 그는 1691년 예조·병조 좌랑을 거쳐 1692년에는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남인 내부의 정치적 긴장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 동년 5월 사직하고 귀향하게 된다. 이후 한동안 그는 고향에서 노모 봉양에

덕승의 멀지 않은 인척이었다. 이원정의 아버지 李道長이 김시양의 사위였으므로 손덕승의 외조부 權環과 이도장은 4촌, 이원정과 權得興(권경의 아들)는 6촌, 李聘命(이원정의 아들)과 손덕승은 8촌의 척분이 있었다.

53) 李萬運, 『默軒集』卷9, <梅湖孫公墓誌銘> “文章典雅 尤以詩賦名 自少聞望 藹蔚 洪尙書萬朝薦之銓官 秉銓者介而要之 公謝不往 一宰相歎曰 孫某我東傑士 不苟合 位不顯矣”

54) 孫德升, 『梅湖集』卷6, 附錄 <行狀>(李復厚撰) “未嘗取於吏民 必用官資 民無流散失業者 郵卒立石以頌其德 先生居官如居家 推誠信以臨吏卒 崇禮讓以勸民氓 不威而化 行庭無訟者”

전념하는 한편으로 사우들과 산천을 유람하며 심신을 수양하다 1701년(숙종 27) 모친상을 당해 커다란 슬픔에 빠지게 된다.

그가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은 것은 1705년(숙종 31)이었다. 조정에 서는 그를 高山 찰방에 임명하여 부임을 재촉했고, 1706년 정월 임지에 도착한 그는 관용과 엄치로서 직임을 살폈으며, 공무의 여가에는 관찰사 홍만조, 문천군수 鄭東望과 唱酬和答하며 지역과 정과를 초월하는 교계를 다졌다.⁵⁵⁾

그러나 이미 관직생활에 염증을 느낀 지 오래였던 그는 동년 겨울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梅湖草堂·素軒을 짓고 학자적 삶을 추구하다 1725년(영조 1) 67세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뛰어난 학식과 문장, 세상을 향해 가졌던 경륜과 포부에 비해 그의 환력은 참으로 보잘 것 없었다. 그렇다고 손덕승의 관료 생활 또는 관료적 면모를 벼슬의 높고 낮음만 가지고 논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비록 그는 당상관이 되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당대 남인의 중진들과 두루 교류하며 남인정권의 운영에 음양으로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환 과정에서 그가 유대를 가진 인사는 權大運·閔宗道·李聃命·權愈·柳命天·蔡彭胤·權以鎭 등 숙종조 남인정권을 이끌던 존재들이었고, 특히 남인의 대학사로 일컬어진 권유는 그가 학자·관료 두 측면에서 매우 존경한 인물이었다.⁵⁶⁾

時事를 인식하고 또 바라보는 손덕승의 관료적 면모의 일단을 가장

55) 孫德升, 『梅湖集』 卷6, 附錄 <行狀>(李復厚撰) “時晚退洪公爲道伯 竹沙鄭公東望在文川 嘗過從 多唱酬”

56) 孫德升, 『梅湖集』 卷6, 附錄 <行狀>(李復厚撰) “先生常曰 退甫一言可堪 吾一生師 退甫 霞溪字也”

잘 보여주는 것은 권이진에게 보낸 서간(1711-1713년 경)⁵⁷⁾과 「人妖說」이란 논설이다.

주지하다시피 권이진은 權認의 손자로 호서 남인의 핵심을 이루는 인물인 동시에 송시열의 외손이라는 점에서는 정치·학문적으로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띤 인물이었다. 1724년(경종 4) 경상감사 재직시 송시열영당[鳳岡影堂] 훼파사건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노론들의 공격을 받은 것도⁵⁸⁾ 집안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권이진은 경주부윤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함께 유람을 하는 등 손덕승과 친교가 깊었고, 1711년 12월 부임 이후 어느 시기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적은 「雜記」를 손덕승에게 보여준 것 같다. 이를 열람한 손덕승은 권이진이 정치적 국면 및 시사 인식에 있어 서인계에 경도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강한 불만을 피력한 바 있었다. 특히 그는 권이진의 외조이자 노론의 상징적 존재였던 송시열의 정치적 처변에 대해 혐오감을 가졌던 것 같고 그에 따른 소회를 권이진에게 여과없이 설파하는 강단을 보였다.

문제가 된 것은 송시열과 朴泰輔의 관계였고, 빌미가 된 것은 송시열의 아버지 宋甲祚에 대한 박태보의 비판이었다. 광해군 대인 1617년(광해군 9) 사마시에 입격한 송갑조는 상소를 통해 인목대비에게 사은하지 않을 뜻을 천명한 李榮久 등 동방들과는 달리 혼자 대비에게 사은하여 절의

57) 權以鎭는 1711년 12월부터 1713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경주부윤으로 재직했다. 수신자가 수령을 뜻하는 '明府'인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왕래된 서간으로 추정된다.

58) 『영조실록』 권5, 영조 1년 4월 16일(계미) ; 『영조실록』 권6, 영조 1년 5월 17일(갑인).

를 지킨 인물로 일컬어져 왔다. 그러나 후일 박태보가 이영구의 상소에 송갑조 또한 연명했다고 주장함으로써⁵⁹⁾ 종전까지 훈장처럼 여겨졌던 절의지사의 위상에 심하게 금이 갔고, 이로 인해 송시열은 박태보를 몹시 혐원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당시 박태보가 仁顯王后의 폐출을 반대하다 죽음을 맞는 상황이 되자 송시열이 자손들에게 박태보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문자를 남김없이 소각할 것을 명했다고 한다. 심지어 송시열은 박태보의 죽음을 듣고는 깊은 애도와 함께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말게 했다.

① (박태보는) 송시열의 아버지 송갑조를 무함하여 그 외증조 尹煌을 推獎하는 뜻에 어긋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들이 幻惑됨을 병통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에 이르러 송시열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素食을 하였고, 이어 자손에게 박태보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경계하였다.⁶⁰⁾

② 송시열이 濟州에서 拿致되어 돌아오는데 바다를 건너와서 中宮을 이미 폐한 것과 兪斗寅·朴泰輔가 간하다가 죽은 것을 듣고는, 드디어 먹지 아니하였다.⁶¹⁾

손덕승은 바로 이 부분을 아혹스럽게 여긴 나머지 송시열의 處變에 분개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던 것이다.

59) 『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 2월 1일(기해).

60)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5월 4일(기해).

61)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6월 3일(무진).

朴士元(박태보)이 懷川(송시열)에게 미움을 받은 것은 비록 다소의 절박함은 있지만 미움의 대체는 그 아버지를 폄훼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환국 뒤에 회천이 그 손자에게 사원을 언급한 문자를 남김없이 불태우라고 명하였습니다. 아! 그 사람이 한가지 일에 선함을 얻으면 비록 그 욕이 아비에게 미쳤어도 모두 입을 다물고 용인하는 것입니까.⁶²⁾

손덕승은 송시열의 이러한 처변이 의리와 명분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기인하는 추악한 행위이자 남인들을 통제·억압하기 위한 교묘한 정치적 술수로 규정했던 것이다.

박태보가 기사환국 당시 인현왕후의 폐출을 반대하다 목숨을 잃은 것은 스스로의 의리를 고집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이것은 노론의 명분을 크게 살려주는 계제가 되었다. 이에 송시열은 박태보가 일찍이 자신의 아버지를 폄훼한 것을 덮고 오히려 그를 비호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다. 손덕승이 더욱 혐오스럽게 여긴 것은 송시열이 박태보에 가탁하여 영남남인들의 단점을 드러내려 했다는 데 있었다.⁶³⁾

결국 손덕승은 기호사림의 주장이자 영수로 일컬어지는 송시열이 선비적 의리·명분보다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처변하는 행태에 환멸감을 가졌고, 자신의 외조를 두둔하는 듯한 권이진의 필설에 또 한번 분노했던 것이었다.

62) 孫德升, 『梅湖集』 卷3, <與權明府>.

63) 孫德升, 『梅湖集』 卷3, <與權明府> “己巳之事 彼輩失志之大關 而中壺之變 實有不可言者 士元明白陳章 正直就戮 是雖士元所以自執義理處 而亦自爲彼輩之逞願以爲斯人也 而貶損之 則將爲其黨之累 是故 寧不卞其父之受毀 而固爲其黨而掩護 是其心術之所及 初不在於爲士元直 假士元而表吾南之短 南旣受短 則父過不必問也”

참으로 索言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은미한 곳을 드러내거나 남의 허물을 바로잡는 것은 처세의 도리가 아님을 모르지 않지만 명부의 견해를 접함에 세도의 변함이 우려되어 거리낌없이 몇 말씀을 드리고 나니 두려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책자는 아울러 돌려드립니다.⁶⁴⁾

이 서간에서 우리는, 비록 그 대상이 가장 절친한 벗이라 해도 의리와 명분에 있어 조금의 하자가 있으면 항변과 충고를 주저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어떤 사안을 정치적 계산보다는 사리에 비추어 진단코자 한 손덕승의 예리한 판단력과 문과 출신으로 중앙에서 벼슬을 지낸 관료로서의 탁월한 식견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인요설」은 권력에 아부하고 또 영합하는 세태에 대한 깊은 우려의 마음을 담은 글이다. 숙종조 이후 남인의 영락이 가속화되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권력에 줄을 대고자하는 영남의 속사정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영남남인의 한 권에 존재했던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강하게 묻어 있었다.

기사환국을 전후한 시기에 경주에 한 남자가 출현하여 스스로를 영의정의 아들이라고 하며 거만스럽게 위세를 드러냈다.⁶⁵⁾ 당시 영의정은 金壽恒이었고, 그 아들은 흔히 ‘六昌(昌集·昌協·昌翁·昌業·昌緝·昌立)’이라 불린 문단의 준재들이었다. 그 중에는 진사에 입격한 다음 과거를 포기하고 산수를 유람하며 호탕하게 지내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4자 金昌業이었다. 당시 경주 사민들은 그 남자를 김창업으로 알았고, 下吏·武人

64) 孫德升, 『梅湖集』 卷3, <與權明府> “不必索言也 發人之隱 矯人之過 自知非處世之道 而荷明府之見示 憂世道之變 畧言不諱 恐甚恐甚 冊子并爲還呈耳”

65) 孫德升, 『梅湖集』 卷5, <人妖說> “今首揆金公上舍子一人 不復事學業 跌宕於山水間云 是年春有一男子 托於鷄林之城下 自言爲金相子”

輩와 무식한 士子는 물론 인근의 수령들까지 그를 영접하며 연줄을 대기에 부심했다. 모두 벼슬을 탐하는 자들이었다.

손덕승은 한 눈에 그가 재상의 아들을 가칭하는 사기꾼임을 간파하고는 요괴[人妖]로 지목하고 부윤에게 그를 잡아 처벌한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⁶⁶⁾ 물론 그 남자는 丹城에 사는 金漢弼로 밝혀졌고,⁶⁷⁾ 사단은 이로써 종결되었지만 손덕승은 도의와 명분은 사라지고 오로지 쉼을 좇는 영남의 세태에 엄청난 충격과 분노감을 느끼면서 후일의 경계로 삼기 위해 이 글을 남긴 것이다.

「인요설」에 나타난 손덕승의 處事의 특징은 실천성이다. 그는 吏道의 문란함이 향곡에까지 미치는 부박한 세태를 개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의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혹여 재상의 아들일 때 감당해야 할 부담이 결코 적지 않았지만 그는 그러한 이해관계에 구애되지 않고 윤리와 강상 그리고 법률에 의한 처분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것은 전직 관료로서 관계의 혼탁상이 士習을 비롯한 향촌의 기풍까지도 허물어뜨리려는 세태를 목도하면서 올곧은 관료정신에 입각하여 이 문제에 정공법으로 맞섰던 것이다. 물러남을 추구하면서도 부조리한 상황 및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그가 가지는 관료적 면모의 핵심 가치였던 것이다. 그를 관료로서도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6) 孫德升, 『梅湖集』 卷5, <人妖說> “余書告府伯 曰此人妖也 盍治之乎 治之而斯得不翅若披雲見日 而奔競子息 可快也”

67) 孫德升, 『梅湖集』 卷5, <人妖說> “夫人妖姓金 漢弼其名 居丹城云”

V. 18세기 영남사림에서의 역할과 위상 : 院享論 및 文字撰述을 중심으로

文章이典雅하고 특히, 詩賦에 장점이 있었던 손덕승의 문학적 자질은 그의 깊은 학문 및 인품과 결부되어 다양한 형태의 문자 찬술로 이어졌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는 교유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문자를 청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반면 사림적 공공성을 지닌 문자, 현창할만한 행적을 가진 인물과 관련된 문자는 결코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숙종 후반에서 영조 초반에 이르는 시기의 경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유림 관련 중요 문자는 사실상 도맡아 찬술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것은 서원 제향, 즉 院享 문자였다.

그가 찬술한 주요 원향 문자는 1712년(숙종 38) 울산 盤阜書院에 정몽주·이언적·정구를 제향할 때의 봉안문, 숙종 연간 경주 龜岡書院에 李齊賢의 영정을 봉안할 때의 고유문, 朴仁老의 제향처 영천 道溪書堂의 兩丁축문 등이 있다.⁶⁸⁾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것은 東岡書院 및 손중돈과 관련된 문자이다. 그는 손중돈에게는 방손이었지만 탁월한 학식과 문장을 바탕으로 손중돈 현양사업을 사실상 진두지휘하였고, 그 연장 선상에서 「崇德祠上櫟文」, 「東江書院記」, 「東江書院奉安愚齋先生文」, 「東江書院常香文」을 지었던 것이다.

68) 孫德升, 『梅湖集』 卷4, <盤阜書院奉安圃隱晦齋寒岡三先生文>, <龜岡書院奉安益齋先生影幀文>, <道溪書堂蘆溪朴公兩丁祝文>.

손중돈의 주향처인 동강서원은⁶⁹⁾ 1695년(숙종 21) 사림과 후손의 공조를 바탕으로 건립이 발의되었다. ‘東江建院論’을 이끈 사람은 李珪(이언적 현손)를 비롯하여 任仁重, 孫汝斗(손중돈의 6세손) 등이었다.⁷⁰⁾ 동강서원 건립은 무려 10년 가까운 세월이 소비된 거대한 역사였고, 강당 및 묘우가 완성되어 손중돈의 위패를 봉안한 것은 1707년(숙종 33)이었다.

동강서원은 崇德祠를 사우로 하여 강당은 諄敎堂, 동재는 窮理齋, 서재는 盡性齋, 문루는 濯淸樓, 출입문은 由道門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손중돈의 학문적 지향과 자취를 잘 담아낸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서원 낙성 후 ‘東江書院記’, ‘奉安文’, ‘常享祝文’ 등 기문을 비롯한 각종 예식문자를 도맡아 찬술한 사람이 바로 손덕승이었다. 특히 그는 봉안문에서 동방의 대유 이언적을 존재하게 한 학문적 역할을 특기했는데,⁷¹⁾ 이는 손중돈이 그 자체로 도학자였기보다는 이언적과 같은 걸출한 도학

69) 손중돈을 제향하는 또 다른 서원으로는 상주의 涑水書院이 있다. 손중돈은 1506년 9월부터 1509년 6월까지 상주목사로 재임했고, 경내 사민들이 그의 선정에 보답하기 위해 生祠堂을 건립한 것이 속수서원의 기원이 되었다. 이후 생사당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35년(인조 13) 全湜·李垞 등에 의해 중건되었고, 1656년(효종 7)에는 景賢祠로 개칭되면서 고려 후기 안렴사를 지낸 申祐를 병향했다. 이어 1703년(숙종 29)에는 사림의 공의에 따라 속수서원으로 승격되었고, 1730년(영조 6)에는 金宇宏·趙靖을 추향하였다. 이로써 속수서원은 손중돈·신우를 주벽으로 하여 김우광·조정을 배향한 상주지역의 대표적 원우의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다. (孫仲喲, 『愚齋集』 卷3, 「立朝編年」(上) <己巳>(1509) “州人建生祠于丹密縣 畫像以祀之” ; 全湜, 『沙西集』 卷7, <孫景節公仲喲生祠重修奉安文> “律己之淸 愛民之仁 於戲曷忘 遺廟載新” ; 申悅道, 『懶齋集』 卷6, <涑水書院告由孫月城君文 按廉使先生奉安時>)

70) 孫德升, 『梅湖集』 卷5, <東江書院記> “乙亥春 相址于兄江上 丁亥秋 廟宇及講堂成 是年十月丁未 縉儀克舉 鄉進士李珪首事 未就而歿 進士任仁重繼之成 號東江書院 猗歟休哉 先生六世孫汝斗 終始經紀其役”

71) 孫德升, 『梅湖集』 卷4, <東江書院奉安愚齋先生文> “念我鄉里 地是泗洙 有覺文元 實由宅相 淵源學問 前志可徵”

자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음을 평가한 것이었다. 손증돈이 사림들의 기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손덕승은 이른바 ‘愚齋推揚事業’의 최선봉에 자리하고 있었고, 이런 역할은 그와 양동손씨의 존재성을 격상시키는 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편 손덕승은 자가의 문헌 정비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 8대조 계성군 손사성의 묘갈을 찬하는 한편 1694년에 발간된 『月城孫氏族譜』 初刊譜의⁷²⁾ 서문을 짓게 된다.

아들과 손자가 있어	有子有孫
훈업과 청덕이 있었으니	有勳有德
근원이 없이 어찌 흐름이 있고	非源奚流
씨뿌리지 않고서 어찌 거둠이 있겠는가	非種奚獲 ⁷³⁾

계성군은 문장과 행의로서 조야에 이름을 떨쳤고, 양민공과 경절공 두 선생은 충훈과 도학으로서 당세에 우뚝하였다.⁷⁴⁾

이처럼 그는 「계성군묘갈」에서는 손사성(기가조) ⇒ 손소(훈업) ⇒ 손증돈(청덕)으로 이어지는 양동 손문의 도약상을 훈업과 청덕의 관점에서, 「월성손씨족보」에서는 문장·행의와 충훈·도학의 측면에서 규정함으로

72) 이 족보는 1694년 경주부윤으로 부임한 孫萬雄(1643-1712)이 발의하고 손덕승이 주관하여 편찬·간행한 것이다. 손만웅은 손사성의 아우 孫士章의 7세손으로 이 가계는 尙州에 세거하고 있었다.

73) 孫德升, 『梅湖集』 卷5, <鷄城君墓碣銘>.

74) 孫德升, 『梅湖集』 卷5, <月城孫氏族譜序> “有若鷄城 以文章行誼 著名朝野…襄敏景節二先生 以忠勳道學 卓卓當世”

씨 양동의 손씨들이 문장·행의·충훈·도학의 가풍을 세수하는 준거를 제시하게 된다. 양동의 손문이 宗支를 불문하여 화합을 강조하는 가운데 학문과 행의를 바탕으로 영남의 사림사회에서 굴지의 명가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VI. 맺음말

① 손덕승은 문장·행의·훈업·청덕·도학을 숭상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집안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했다. 특히 7대조 계천군 손소의 학문과 청덕은 그가 학자·관료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정신적 자산으로 기능했다.

② 손덕승의 집안은 김종직으로 상징되는 영남사림파의 학통을 착실히 계승했고, 여기에 경주를 본산으로 하는 ‘회재학’과 17세기 이후 영남학의 새로운 경향으로 대두된 ‘여헌학’의 요소가 접목되어 가학의 연원을 이루었다. 특히 증조 손로의 광범위한 학문·사회적 활동은 손덕승이 17-18세기 영남학파의 핵심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③ 한편 손덕승은 ‘회재학’과 ‘여헌학’의 근기 위에서 近畿學의 요소를 더함으로써 여느 영남 선비들과는 차별성을 지닌 학풍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요소는 외가 안동권씨를 통해 유입되었으며, 그 계보는 김시양⇒권경⇒권덕어⇒손덕승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었다. 후일 그가 권대운·권유·유명천·권이진 등 근기남인을 대표하는 학자·관료들과 심기상통하는 대화를 나누며 깊이 교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바탕 위에서 가능한

것이였다.

④ 손덕승은 외양에 치우치고 시세를 따지는 학문 세태를 혐오했고, 제자를 모아 문파를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였다. 또한 그는 긴요하지 않는 저술을 통해 학문적 위세를 드러내는 것을 조소하였으며, 자격도 없는 자가 사도를 표방하는 것을 개탄해마지 않았다. 그의 이런 생각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 증명하였으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경주유림의 학문 활동을 진작·면려하는 과정에서는 18세기 초반 동도의 사유로서 그 위상이 확고해졌다.

⑤ 손덕승은 1684년 문과에 합격하여 관계에 발을 디뎠지만 서남당쟁과 환국의 소용돌이는 좀체 그에게 중요한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외관으로 출보되기 일쑤였지만 그 때마다 직분에 충실했고, 관용과 위엄의 리더십으로서 책무를 다했다.

⑥ 동시에 그는 절친한 벗이라 할지라도 영남의 명분과 의리를 왜곡시키는 일이 있으면 직설을 주저하지 않았는데, 송시열의 처변을 두고 권이진과 나눈 설담은 그 단적인 사례였다. 아울러 그는 관료적 식견과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요괴[人妖]의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에서는 실천성과 과감성이 크게 돋보였다.

⑦ 손덕승은 탁월한 문장, 학자로서의 권위를 바탕으로 사림 및 집안과 관련된 다수의 문자를 찬술하였는데, 이것은 존현 및 송조사업의 일환에서 추진된 것이였다. 특히 동강서원 건립 및 문자 찬술에서 드러난 역할은 17-18세기 경주 유림사회에서 가지는 그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역할은 손중돈의 사회적 공인화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양동 손문의 사회·학문적 위상도 더욱 고양될 수 있었다.

⑧ 손덕승은 관료로서는 그 삶이 결코 순조롭지 않았지만 학자로서는 경주사림의 학문 진작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외양보다는 실질을 추구하는 학풍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학문적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1) 원전

『조선왕조실록』(세조·성종·숙종·영조)

權謙, 『厚菴集』

趙咸世, 『五宜軒集』

孫昭, 『襄敏公集』

孫仲暉, 『愚齋集』

李彦迪, 『晦齋集』

孫德升, 『梅湖集』

宋時烈, 『宋子大全』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玉山書院誌』

蔡濟恭, 『樊巖集』

金夏九, 『秋菴集』

李萬運, 『默軒集』

鄭重器, 『梅山集』

『古文書集成』82-寧海 陶谷 務安朴氏(1) : 武毅公(朴毅長)宗宅篇, 한중연, 2008.

『東都鄉飲錄』(仁川廣域市立博物館所藏, 1699年, 紙本墨書, 筆寫成冊本)

2) 논저

- 정수환, 「고문서를 통한 영해 무안박씨 가계의 재조명」, 『명가의 고문서』(7) -무안박씨 무의공후손가-,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369쪽.
-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5-14쪽.
- 김학수, 「葛菴 李玄逸 연구-經世論과 學統關係를 중심으로」,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0-20쪽.
- 김학수, 「갈암 이현일 연구 -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4, 조선시대사학회, 1998.

Abstract

Scholarly and Bureaucratic Pers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Son Deok-seung(1659-1725) : Personality Developed by Fusion of
School of Yeongnam Province and School of Gyeonggi Area

Kim, Hak-Su

This article focuses on Son Deok-seung who grew up from the family representing Yeongnam School in late-Joseon dynasty with differentiation from the existing scholars of that school in terms of learning and implementation methods, highlighting his scholarly and bureaucratic aspects to seek the variability of the historical figures study. He belonged to the establishment in Yangban class since he was a descendant of Son Soh, a meritorious retainer of Jeok-gyeo. Moreover, he could be called as the class of conservative Confucian scholars because he grew up in the stable situation in Yangdong, Gyeongju. However, his studies were from the mainstream of Yeongnam province school, Hoetoe (including both Hoejae, Lee Eon-jeok and Toegye, Lee Hwang), and covering also the contents of Gyeonggi area school at the same time. From his viewpoints to see the existence and roles of rustic literati symbolized by Lee Hyeon-il critically, we could understand his intention to exceed the existing ideas. Especially, his direct criticism to Song Shi-yeol, the symbol of Noron School in late-Joseon dynasty and the decision power to eliminate the prevailing state of the society to flatter on the pow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Yeongnam intellectuals in the same era. This is to seek the root causes of Son Deok-seung's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scholarly and bureaucratic aspects in fusion of school of Yeongnam province and school of Gyeonggi area, which will be helpful in miniaturizing the characters of

historical figures study in late-Joseon dynasty.

Key Word

Son Deok-seung, Yeongnam School, school of Yeongnam province, school of Gyeonggi area

▪ 논문투고일 : 2015.7.14 심사완료일 : 2015.8.11 게재결정일 : 2015.8.14